

## 손골성지 개발을 위해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손골성지 조성은 병인박해 순교 100주년인 196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198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당과 사제관은 손골성지 50년이 된 2016년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야외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들의 길이 조성되었고 무명 순교자들의 묘와 손골기념관이 있으며 성당 지하에는 4위 성인(다블뤼 주교님, 도리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과 손골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신 순교자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피정의 집** : 박해시대 선교사 신부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개인이나 소그룹이 손골성지를 찾아와 피정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집을 고쳐서 피정의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야외 기도처 조성** : 손골성지에는 공동 기도 지향이 있는데, 순례하는 모든 분들이 손골성지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순교자들을 만나 영적 선익을 얻고, 혹 어려움 중에 있으면 순교자들의 전구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손골성지에서는 공동 지향대로 매일 기도드리며 순례자들도 같은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손골성지가 더욱 알차게 조성되도록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골성지 특별후원금은 1구좌가 30만원입니다.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면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봉헌하신 분들도 성지개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회비 은행 계좌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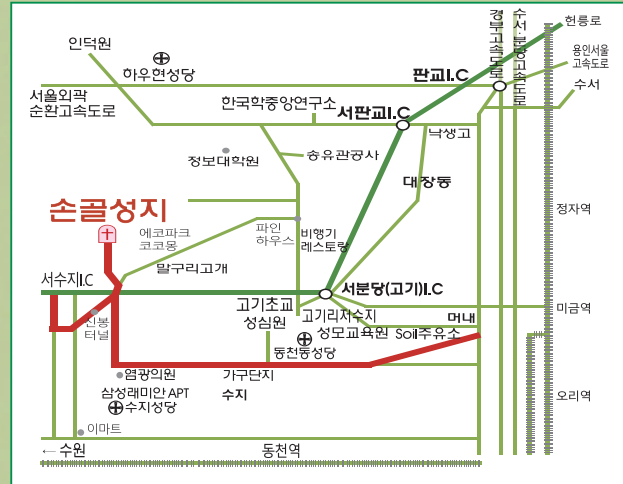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우리은행 : 346-014220-13-101  
 농협 : 235100-51-010119  
 예금주 : 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 미사 시간

주일 · 평일 : 오전 11시(월요일 없음)

- \* 단체 순례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후 별도 미사 봉헌이나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 미사예물을 미리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전철 : 분당선 미금역(7번출구) → 마을버스17번 → (삼성레미안 1,4단지 앞)하차 → 마을버스17-1번 → SM루빌 하차 → 손골성지 도보 7분  
 분당선 죽전역(2번출구) → 마을버스17-1번 → SM루빌 하차 → 손골성지 도보 7분  
 신분당선 동천역(1번출구) → 마을버스17-1번 → SM루빌 하차 → 손골성지 도보 7분

- \* 서울, 수원, 성남 어느 방향에서든 수지 죽전역에서 내리십시오.
- \* 마을버스는 분당선 죽전역 2번출구와 신분당선 동천역 1번출구에서 17-1번을 타시고 SM루빌 하차 손골성지 도보 7분.

### •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국도 : 용인 수지 → 동천동 성당 → 한빛중학교 → 에스엠 루빌 → 손골성지  
 \* 고기리 방향으로 오시면 복잡하니 네비게이션에 동천동 성당, 한빛중학교를 찍고 오십시오.  
 용인서울고속도로 : 서수지C → (서수지C 사거리)신봉동방향 좌회전 → 동부센트레빌 사거리 좌회전 → 신봉터널통과 후 좌회전 → 다리건너 좌회전 → 동네 입구에서 우회전 → 로타리에서 12시 방향 언덕위에서 우회전 → 손골성지  
 영동고속도로 : 동수원IC → 수지 광주 방면 좌측도로 → (광교사거리) 서수지C방향 좌회전 → 버들치터널 → (서수지C 사거리)신봉동방향 직진 → 동부센트레빌 사거리 좌회전 (이하 위와 같음)



# 손골성지

주소 :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7번길 67  
 전화 : (031) 263-1242 팩스 : 263-1252  
 홈페이지 : www.songol.or.kr

### 성 김(도리, Dorie) 헨리코 신부

1839년 9월 23일 프랑스 탈몽(St. Hilaire de Talmont)에서 태어나 교구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다니다 파리의방전교회에 입회하여 1864년 5월 21일 사제가 되었다. 조선선교사가 되어 1865년 5월 27일 충남 내포지방에 도착하였고 6월 23일부터 조선대리감독구장(朝鮮代理監牧區長) 베르뇌(Berneux) 주교의 지시에 따라 손골에 머물며 우리나라 말과 풍습을 익혔다. 1866년 2월 27일 손골에서 체포되었고 3월 7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도리 신부

오메트르 신부

### 성 오(오메트르, Aumaitre) 베드로 신부

1837년 4월 8일 프랑스 에젝(Aizecq)에서 태어나 1862년 6월 14일 사제가 되었다. 조선선교사가 되어 1863년 6월 23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7월말부터 손골에 머물며 말과 풍습을 익혔다. 1864년 성령강림대축일에 베르뇌 주교에게서 정식 발령을 받고 손골 주변 교우촌을 사목방문하고 미리내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풍토병에 걸려 요양하였다. 완쾌된 후 1865년 11월부터 무량골, 음다라니, 사기막, 소내실 교우촌을 방문하였고, 1866년 박해가 일어나자 머물던 샘골(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을 떠나 다블뤼(Daveluy) 주교와 의논하기 위해 거더리(예산군 고덕면 상궁리)로 갔다가 3월 11일 자수하여 서울로 압송되었고 30일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하였다.



오메트르 신부와 도리 신부가 살던 집

손골성지는 박해시대 교우촌(敎友村)이다. 손골에 교우촌이 형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기해박해(1839) 이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골은 박해시기 우리나라에 온 도리 신부와 오메트르 신부를 포함하여 프랑스 선교사 다섯 분이 말과 풍습을 익히기 위해 머물던 곳이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와 다른 선교사들도 손골을 찾아 머물렀다. 당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성모님 축일을 딴 이름을 붙였는데 손골은 '성모취결례(聖母取潔禮)' 지역에 속했고 선교 중심지였다. 선교사들은 손골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곳을 선교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는 그 곳을 중심으로 주변 신자들을 찾아보며 선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농번기 때 신자 방문을 잠시 멈추고 손골에서 침묵과 단식을 하며 피정을 하기도 하였다.



1966년경 손골 모습

### 3대(三代) 순교자

손골에는 이 요한과 그 아들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손자 이 프란치스코 3대 순교자가 있다. 이들은 충청당진 면천(沔川) 출신인데 박해가 일어나 천안 성거산으로, 전라도로 옮겨가며 살다가 손골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병인박해(1866) 초기에 도리 신부의 권유로 손골을 떠나 용인 남성골로 내려와 살다가 포졸에게 잡혔는데 '3대를 함께 잡아갈 수는 없으니 한 사람만이라도 가져'는 포졸의 말에 3대가 각각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다. 이를 보고 모두 풀어주었다. 그 후 충청 아산 일북면 쇠재에 가서 살았다. 그러다가 1870년 서울 좌포청(左捕廳) 포교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고 3대가 1871년 3월 19일(음) 좌포청에서 함께 순교하였다.

### 무명 순교자 4위

병인박해 때 손골에서 생활하던 신자 4분이 체포되어 수원으로 끌려가던 중 신봉동 개울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에는 '먼저 참하고 나중에 보고하라(先斬後嚙)'는 명령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둬 개울가 작은 언덕에 구덩이를 파고 돌로 덮어 '돌무덤'을 만들었다. 이곳의 옛 이름이 서봉(시봉)이고 순교자들의 이름과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아 '서봉부락 무명 순교자 돌무덤'이라고 불리며 전해내려 왔다. 이 순교자들이 현재 손골성지에 모셔져 있다.

손골성지에는 도리 신부 현양비가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는 프랑스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는 농부였던 도리 신부의 부모가 사용하던 맷돌로 만든 것이다. 1966년 도리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고향 본당에서는 맷돌로 똑같이 생긴 십자가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도리 신부 생가(生家)에 두고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도리 신부가 탄생하였던 곳과 도리 신부가 선교하러 와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일관성 짝등이로 태어나 한국에 온 돌 십자가를 토대로 손골에는 도리 신부를 기념하는 탑 모양의 현양비가 세워졌는데 그 맨 꼭대기에 그 돌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현양비는 1966년 10월 24일 축복되었고 이때부터 손골에 순례가 시작되었다. 이 현양비는 처음에는 돌을 10단 쌓아 만들었는데 1968년 도리 신부님을 비롯하여 24위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시복되면서 18단이 되었다. 그 후 현양비는 103위 성인이 탄생하면서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2016년 도리 신부 순교 150주년에 원형대로 복원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쳤지만 현양비 맨 꼭대기에는 언제나 도리 신부 고향에서 온 맷돌로 만든 돌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다.



맷돌로 만든 십자가

손골의 18단 현양비



손골기념관

### 성지순례 순서

1. 성당에서 기도한다. (손골성지 순례기도 책 참조)
2. 손골기념관을 차분히 돌아보고, 동영상을 보며 묵상한다. (성지 사무실에 문의)
3. 순교자들의 방(성인들 유해 모신 곳)에서 기도한다.
4. 성모상 주변에서 "순교자들의 길" 기도를 바친다. (손골성지 순교자들의 길 책 참조)
5. 무명 순교자들의 묘를 참배한다.
6. 도리 신부 현양비를 참배한다.
7.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친다.
8. 손골성지 개발을 위한 후원금을 봉헌한다.

\* 순례하는 동안 손골성지의 공통 기도 지향에 따라 순례하시는 모든 분들이 손골성지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순교자들의 전구로 영적 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길